

전북지역 언론인과의 만남

지방화 시대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

전북지역 언론인 만나 반갑습니다. 전북도민에게 인사드립니다. 전북은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따져보면 저와 가장 돈독하게 지내온 정치인들이 많습니다.

실제 이 정부의 요직에도 전북 분들이 많습니다. 대통령선거에서 내 고향보다 3~4배 많은 표를 주신 곳입니다. 각별히 친근감을 갖고 있는데 요새 각별히 갈등이 많아서 고민입니다. 그러나 잘 풀릴 것입니다. 참여정부 여러 국정목표 있지만 1순위에 국토의 균형발전, 지방발전이 있습니다. 지방화시대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. 여러 전략을 기획하고 실천중인데 여기에는 지방대학과 마찬가지로 지방언론이 큰 역할을 해야합니다. 그래서 대통령도 지방언론을 존중해야 합니다. 요즘 돌아가며 지방언론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.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대화하는 내용이 전북도민에게 전달해주십시오. 이 대화가 상호간 갖고 있는 불신과 오해를 씻어내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.